

하늘길 동맹 1주년...인천공항 위상 높다

미주·아시아 전 노선 공동운항 18년 만에 인천-보스턴 재취항 북미·중남미 노선 확대 계획도

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한 여행편의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항공사 조인트벤처는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항공기 출·도착 시간부터 운항편에 이르기까지 항공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공동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1일 조인트벤처를 본격 시행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후 미주 및 아시아 전 노선 공동운항(Codeshare), 공동판매 및 마케팅, 양사간 마일리지 혜택 강화 등을 선보였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인천-보스턴, 인천-미네아폴리스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조인트벤처 활용 18년 만에 보스턴 재취항

미주지역의 두 신규 노선 취항은 대한항공이 4월 12일부터 인천-보스턴 노선에, 델타항공은 4월 2일부터 인천-미네아폴리스 노선에 각각 취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일 항공사가 직항 수요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한국-보스턴/미네아폴리스 노선을 동시에 신규 취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인트벤처의 효과 덕분이다.

이번에 대한항공은 18년 만에 인천-보스턴 노선에 재취항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보스턴 노선은 델타항공의 미국 내 판매망을 활용해 기업고객 수요를 유지하고,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해 운항하고 있는 신기종 항공기인 보잉사의 B777-9.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 출범 이후 아시아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 스케줄과 노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고객 편의를 높여 아시아의 허브공항 경쟁에서 인천공항의 위상을 강화하고, 두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사진제공 | 대한항공

델타 마일리지 프로그램 고객 수요도 유지할 수 있어 가능했다.

인천-미네아폴리스 노선 역시 델타항공의 직항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70여개 도시로 대한항공의 아시아 노선을 활용, 다양한 목적지 판매가 가능해 성사됐다. 델타항공도 애틀란타에 이은 미주지역의 제2 허브도시인 미네아폴리스를 오가는 하루 수백 여편의 연결항공 강점을 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번 취항으로 인천-미국 13개 도시로 주간 130여편의 항공편을 운영하게 됐다. 양사의 한-미 직항 노선도 15개 노선으로 늘어났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앞으로 보스턴-피츠버그, 미네아폴리스-클리블랜드 등 델타항공이 운항하는 보스턴 및 미네아폴리스 출·도착 90여개 노선

에 대한 공동운항도 추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가, 승객혜택 특성

조인트벤처는 선택가능한 항공편이 풍성해진다는 것 외에도 항공여객들에게 편리한 점이 많다. 미주 연결 편 예약/발권/환승이 한결 편해지고 다양한 항공편 덕분에 여행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출·도착 시간 및 연결편을 조정하고 환승 시 필요한 최소 연결시간을 단축해 항공여객의 여행 스케줄 운영을 돕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계기로 양사를 이용하는 환승승객의 연결시간은 기존 70분에서 45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 수요가 크게 늘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

스 회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스카이패스 회원이 델타항공을 이용할 경우 대한항공 탑승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승 조정되었고, 적립 기회도 확대됐다. 전략적인 신규 항공기 투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B747-8i를, 델타항공은 인천-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노선에 A350 항공기를 투입했다.

앞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공동운항 노선을 현재의 북미 지역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라운지 및 카운터 공동 사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나리타 공항 등 일본을 경유하던 미주 출발 아시아 행 환승수요를 인천공항으로 유치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핵심 허브 공항으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관광공사-롯데호텔 서비스부문 MOU

한국관광공사와 롯데호텔은 4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캠프 스위트 연회장에서 베니키아 호텔 체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종사원 교육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저가 관광호텔의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한 호텔 체인 브랜드로 현재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에 50개 및 해외에 1개의 관광호텔이 가입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호텔 서비스 아카데미의 강사가 직접 베니키아 호텔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11번가, 11일까지 '월간 여행' 기획전

11번가는 '월간여행' 기획전을 11일까지 연다. 국내숙박과 국내여행, 제주여행, 레저입장권, 여행필수품 등을 판매한다. 기획전 '국내여행' 전용 10% 할인, '국내숙박·레저입장권' 전용 5% 할인, '제주여행' 전용 10% 할인 등 쿠폰을 발급받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1월 1일~4월 28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내여행 인기 지역은 제주도로 전체 거래액 중 26.1%를 차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론칭



현대자동차그룹은 강원도 인제스피드미에서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차량 성능을 상시(연간 80~100회) 체험해 볼 수 있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10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제네시스 브랜드의 드라이빙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오픈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0일부터 강원도 인제스피드미에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제네시스 차량을 브랜드별로 체험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HMG Driving Experienc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가 2016년부터 매년 운영하던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기아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로 확대해, 현대차그룹 모

든 브랜드의 차량을 서킷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간 80~100회 진행할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은 운전자의 주행능력과 참가 조건에 따라 드라이빙 기초 교육(레벨 1), 스포츠 드라이빙 입문 교육(레벨 2), 스포츠 드라이빙 심화 교육(레벨 3), 주행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수준의 최상위 드라이빙 교육(레벨 4) 등 4개의 클래스로 나뉜다.

참가자들은 좌석 및 운전대 위치와 가속·감속 제어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긴급 제동 및 긴급 회피, 슬러럼 주행, 서킷 체험

레벨 1~4 클래스...연간 80~100회

등 다양한 드라이빙 스킬을 배울 수 있다. 국내·국제 운전면허증 소유한 고객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현대차의 신형 아반떼·벨로스터 1.6T·i30 N 라인, 기아차의 K3 GT·스팅어 3.3T, 제네시스의 G70 3.3T를 대여(유료)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상품본부장 토마스 슈미에라 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드라이빙 체험 활동을 강화해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터스포츠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허리·목·무릎 통증을 운동으로 한번에.. 전자동 거꾸리!

◆허리통증..운동,비수술 단계별 치료 현대인들의 척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적어지는 중장년들은 근력이 감소함에 따라 경·척추 질환자가 늘고 있다. 척추는 기와짐의 대들보에 비교될 정도로 우리 몸에 있어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경·척추가 무너질 경우 통증은 물론 디스크나 추간판 등과 함께 심할 경우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척추가 받는 중력의 힘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이러한 중력의 힘을 반대로 이용하여 척추를 견인해 주어 교정하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주어 척추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자동 전동 거꾸리는 척추 건강 개선 뿐만 아니라 전신 스트레칭 효과도 볼 수 있고 하체에 몰려



3단계 자동운동기능 장착 세계최초 특허 등록 10-1884157 [KBLZ-1억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가입] 실버 전용 자동전동거꾸리

있는 혈액을 머리까지 공급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기존 수동 방식의 거꾸리와는 다른 자동 방식으로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핸디형 리모컨으로 쉽게 초보자나 노약자분들이 혼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 할 수 있다. 또한 서서 시작 하는 방식으로 혈압이 있는 환자의 사용에 무리가 없고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세련된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경제성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하루 5분씩만 거꾸리 운동에 투자 한다면 경·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국내유일 3단계 자동 프로그램형 전동 거꾸리는 100% 국내제작으로 1년 무상 A/S되며 1만개 판매 감사기념으로 2019년형 최초 40% 할인행사와 5개월 무이자도 3일 무료체험과 20만원 상당한 사은품을 30분에게만 진행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

다리의 멍침, 쥐가 난다면 발목펌프운동 추천~

◆'누구나 쉽게 누워서 하는 이어돌'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이어돌'은 우리 몸 혈관의 80% 이상이 모여 있는 발목을 자극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구다. '이어돌'이란 '막힘없이 이어서 도는 순환'의 순우리말이다. 발목펌프 운동의 시작은 신장병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앓던 일본인 이나가키씨가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물을 뿜아올리는 힘을 관찰했다고 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펌프 운동은 발목의 혈관을 두드려줌으로써 혈관의 수축/이완을 도와 아래쪽에 모여 있는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쪽으로 운반시켜 혈액이 순환되는 원리로 목숨을 고여 있던 노폐물을 정화와 피로를 풀어준다. 특히, 발저림으로 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는 분 들이나, 저녁에만 발이 시리거나, 기동이 불편하여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사용하여 각종 성인병까지 치유가 된 사례가 있는 책이 출판 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



7단계 자동운동기능 발목펌프운동기

동운동기 '이어돌'이 출시되었다. 관계자는 "타제품과는 다르게 리모컨이 내장되어 편하게 누워서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소음, 저진동으로 바닥 울림이나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7가지 운동 패턴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고 전했다. '이어돌' 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목펌프 운동은 하루 중 아침 공복시 및 취침 전 2~3회 정도

무릎을 펴고하면 효과적이다. 초보자는 시작할 때 강도 조절 버튼으로 처음에는 약도로 놓고 며칠간 사용하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돌' 관계자는 "2주년 출시기념으로 3일간 무료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후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 고 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